

지방 도시, 지역 사회 돌봄 시책 추진

광주시 복지정책과
2023.1.26.

제주도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2023.2.7.

전라남도 사회정책제과
2023.2.10.

광주시,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 시행

광주시가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 추진을 위한 서비스 모형 체계를 구축하고 4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는 빈틈 없는 전 생애주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망 구축이 목표이다. 시민 누구나 질병이나 사고·노쇠·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으며, 경제적 형편이 아니라 '돌봄의 필요도'에 따라 서비스 대상이 정해진다고 시는 설명했다. 4월 개통하는 '돌봄콜'을 단일 창구로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하면 동 사례관리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돌봄이 필요한 정도를 확인해 1대1 맞춤형 돌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후 ▲기존 제도권 돌봄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거나 필요에 따라 ▲7대 광주돌봄 서비스 ▲긴급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기존 제도권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제공되는 7대 광주돌봄 서비스는 ▲취사·청소·세탁 등 가사 지원 ▲영양식 등 식사 지원 ▲병원 등 동행 지원 ▲방문진료 등 건강 지원 ▲인공지능(AI) 안부전화 등 안전 지원 ▲간단수리·방역 등 주거편의 지원 ▲단기 일시보호 등이다.

제주도, '우리마을돌봄센터' 시범 운영

제주도와 제주도 사회서비스원이 지역별 돌봄 서비스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고 마을 중심 돌봄모델 개발을 위해 '우리마을돌봄센터'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중산간 지역에 공간과 인력 등 마을자원을 활용해 우리마을돌봄센터를 구축하고,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범 사업 대상지는 제주시 한경면으로 저지리 마을회에서 공간을 제공하고 제주도개발공사에서 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해 조성한다. 우리마을돌봄센터는 제주시 서부권역에서 노인 주간보호 및 재가방문요양 서비스,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전라남도,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추진

전라남도가 지역 사회와 공동체를 통한 돌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100개소를 확정하고 활동 금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을 통해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돌봄이 필요한 마을의 모든 세대에 ▲반찬 배달 ▲식사 제공 ▲긴급돌봄 ▲간단한 집수리 등을 주민 공동체가 수행하고, 도는 이 공동체의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도는 선정된 공동체를 대상으로 회계교육과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이수하고 사업계획이 승인된 공동체는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